

2023년 1월 28일 “(아바드의 사람들 4) 내가 누구인지를 알다”(창 32:22-32)

삶의 도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성경적인 아바드(가꾸는) 삶의 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내면과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야곱의 일생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 아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어머니 태에서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속이는 자' '대신 들어 앉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압박한 야곱은 배고픈 형의 필요를 간파하고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양도받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칩니다. 이 일로 분노한 에서를 피해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बाट아람)으로 피신을 갑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하며 20년을 힘겹게 살지만, 네 아내와 열 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많은 짐승도 얻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가족과 함께 라반 집을 떠나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야곱은 인생의 절정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오늘 본문).

[2]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을 향하여 가던 중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가족을 모두 앞서 보내고, 압복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때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씨름을 하고 날이 새니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가 이름을 묻자, 야곱이라 말합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인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 밖에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감격스러운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떤 '나'를 만났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또한 새롭게 발견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 야곱에 걸맞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고 자신을 규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떤 일을 해도 한계에 부딪히면 초라하고 부족한 죄인이라고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고자 영적 신앙의 씨름을 벌이며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즉, 내 안에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멋지게 회복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브니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였어도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대량 살상을 범하고,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고는 객사합니다.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습니다.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훗날 이집트에 이주하여 황제를 만났을 때, 그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의미는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일개 족장에 불과한 자가

제국의 황제를 축복하는 이 권세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참된 다스림의 본분을 다할 때(창 1:28) 주어진 것입니다. 참 아바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가능해졌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의 길목에서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축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씨름하는 야곱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을 향한 성경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축복이 따라올까요?